



NEWS LETTER

2019년 9월 30일 Vol. 353

개원 14주년 기념식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일산한방병원은 지난 9월 27일 개원 14주년을 맞아 병원 5층 대강당에서 개원기념식을 개최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대내외 귀빈을 비롯해 교직원 300여 명이 참석해 개원 14주년을 축하했다.

개원 기념식은 경과보고, 장기근속자 표창, 공로자 수상, 의료원장 격려사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수상으로 ‘자랑스러운 동국의학인상’에 경주병원 이승우 교수가 수상했으며, ‘동국학술연구상’으로 의과대 의학과 문일수 교수와 분당한방병원 김은정 교수, 일산병원 신경과 류위선 교수가 수상했다. 또, 모범 교직원 19명에 대해 표창하고 각각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이날 조성민 의료원장은 축사를 통해 “개원 14주년을 맞아 모든 교직원께 축하 인사를 드린다. 교직원들의 협조 속에 병원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병원 설립 목표에 부합하는 호스피스 병동을 오픈하게 됐다”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도약하며 지속해서 성장해나가는 동국대학교병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9 DULA 국제 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최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지난 9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동국대학교 LA캠퍼스 학생들을 위한 'DULA(Dongguk University Los Angeles)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동국대학교 LA 캠퍼스 소속 한의학과대학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학생들은 한방 침구과, 한방 내과 등 8개 진료부서의 치료를 관찰하며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의학적 진단, 엑스레이, 초음파, MRI 방법, 침술, 약초 요법, 부항 치료와 추나 치료 방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김동일 한방병원장은 “이번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각국의 교육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에 협업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한의학의 세계화 핵심 역할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환자 전용 엘리베이터 타지마세요~!!’ 캠페인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9월 23일 일반엘리베이터 사용 권장을 위해 ‘엘·베·캠’ 캠페인을 개최했다.

‘엘·베·캠’은 엘리베이터 바르게 사용하기 캠페인으로 환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내원객은 물론 원내 의료진 및 직원들의 일반엘리베이터 이용 권장을 위해 마련됐다.

‘환자 이송 전용엘리베이터’는 침대·휠체어를 사용하는 환자들의 검사나 수술, 시술을 위한 중요한 이동 수단으로, 그동안 의료진이나 직원, 방문객들의 사용으로 인해 환자 이송 지연의 원인이 됐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쾌적한 의료 환경 조성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내원객과 직원들의 안전 문화 인식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티베트, 수미산 순례연수단 의료지원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 14박 15일간 진행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이 주최하는 티베트 수미산 성지순례에 참여했다.

이번 성지순례에는 80여 명의 스님들이 참가했으며, 해발 5700m의 높은 고도에서 고산증세로 힘들어하는 스님들을 위해 건진운영팀 김명숙 수간호사가 의료지원을 펼쳤다.

